
哲宗初 純元王后 垂簾聽政期の 官人 임용 양상과 權力關係

임혜련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머리말

I. 철종 즉위시 정국과 수렴청정의 배경

II. 수렴청정기 官人 임용 양상

1. 비변사 당상의 구성과 변화상

2. 주요 관직의 임용 양상

III. 외척 가문 중심의 권력 관계 형성

맺음말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51-A00006)

● 투고일: 2012. 5. 20. ● 심사일: 2012. 5. 22. ● 게재확정일: 2012. 6. 5.

www.kci.go.kr

요약

본 연구는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던 철종 즉위년부터 2년까지 관임 임용의 실제와 양상을 통해 당시 관료군의 구성과 그 변화상, 주요 관직의 임용양상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형성된 권력관계를 파악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철종 초기 정국은 국왕의 외척 가문이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安東 金門과 南陽 洪門이었다. 이 시기 중심 권력 기관은 備邊司였다. 철종 초기 비변사는 안동 김문과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하였던 안동 김문 계열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다. 비변사의 유사당상, 의천에 참여하는 당상이 핵심관원이었다. 여기에는 안동 김문과 남양 홍문 두 외척가문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들과 연계된 친인척들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순조의 유족을 받았던 풍양 조문을 배제하지 않았고, 대신 안동 김문이 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안동 김문은 비변사를 통해 정치권력을 재생산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철종 친정기에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권력 관계는 현종 시기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종 시기에는 순조의 유언을 바탕으로 하여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이 권력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종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승하하였고, 철종은 순원왕후에 의해 즉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철종 시기에는 외척의 지위가 권력을 장악하는 요인이 되었다.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는 안동 김문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시기였다. 여기에 철종의 왕비가 안동 김문에서 간택되며, 안동 김문은 외척의 지위를 다시 유지하며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수렴청정, 순원왕후, 안동 김문, 비변사, 외척

머리말

조선 후기 정치사를 그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을 때, 19세기는 勢道政治期로 설명되어 왔다. 세도정치는 선왕에게 遺囑을 받은 세도가를 중심으로 특정가문이 정국을 주도하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19세기에 어린 국왕이 연이어 즉위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19세기에 즉위한 순조에서 고종까지의 국왕은 모두 20세 미만에 즉위하였다. 이 중 純祖와 憲宗은 世子·世孫으로 책봉되었다가 11세와 8세에 즉위하였다. 반면 哲宗과 高宗은 왕위 계승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후사로 결정되어 19세와 12세에 급작스럽게 즉위하였다. 이토록 나이가 어려서 즉위하거나, 왕위계승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즉위한 경우 공통적으로 大王大妃의 垂簾聽政이 시행되었다. 수렴청정의 시행 또한 19세기 정치 운영의 공통점이며, 이 시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¹⁾ 이 시기 선왕에게 새로 즉위할 嗣王의 輔導를 유촉받은 세도가는 정조에게 순조를 부탁받은 金祖淳과 순조에게 현종의 보도를 부탁받은 趙寅永이었다.²⁾ 세도정치는 安東 金門과 豐壤 趙門 두 외척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고, 이들 두 가문의 대립으로 설명되어 왔다.³⁾ 그러나 이러한 세도가들이 정국을 주도한 엄밀한 의미의 세도정치는 순조와 현종대 이루어졌으며, 두 외척가문이

-
- 1) 임혜련, 2008, 「19세기 垂簾聽政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유봉학, 1997, 「楓臯 金祖淳 연구」, 『한국문화』 19. : 金明淑, 1999, 「雲石 趙寅永의 政治運營論」, 『조선시대사학보』 11.
 - 3) 세도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적으로, 다음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朴齊炯, 1974, 『近世朝鮮政鑑』, 탐구당. : 李瑄根, 1975, 「세도정치」, 『한국사』 15. : 金興洙, 1985, 「勢道政治研究 - 그 用例의 검토와 意味의 究明」, 『변태섭화갑기념사학논총』. : 한국역사연구회, 1990, 『조선정치사』 上·下, 청년사. : 오수창, 1991, 「세도정치를 다시 본다」, 『역사비평』 12. : 金明淑, 1995, 「19世紀 政治史 理解 過程에 대한 檢討」, 『同大史學』 1.

대립관계에 있지만은 않았다.⁴⁾ 반면 철종대는 현종이 후사 없이 승하했기 때문에 嗣王에 대한 보도를 부탁받은 세도가가 없었음에도, 세도정치의 폐단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로 인식되어 왔다.⁵⁾

철종대 정국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는 정치사 연구가 매우 부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철종대 연구는 철종 집권 말기인 1862년(철종 13)에 발생한 壬戌民亂으로 집중되어 왔다. 세도정치로 인한 폐단에 대해 발생한 민의 봉기가 임술민란이었고, 지배층은 민란을 발생하게 한 원인으로 설명되어 왔던 것이다.⁶⁾ 철종대 정치사 연구는 19세기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조선정치사』에서 소략하게나마 그 흐름이 정리되었다. 이 책은 19세기 세도정치를 정국의 동향·정치구조·정국운영론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다룬 연구이다. 특히 19세기 정국의 동향을 각 외척 집단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⁷⁾ 그러나 이 책에서도 철종대는 상대적으로 미진하게 다루어졌다. 한편 철종이 사도세자의 증손이며, 신유사옥때 賜死된 恩彦君의 손자로 강화도에 거주하다가 순조의 아들로 입후되어 즉위하였던 사정은 정통성 연구를 통해 그 경위가 연구되었다.⁸⁾ 또한 이러한 철종의 정통성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철종 2년의 祧

-
- 4) 순조대에는 초기 집권하였던 경주 김문을 안동 김문, 풍양 조문, 반남 박문이 협력하여 도태시키고 세 외척가문이 협력하는 가운데 김조순의 안동 김문이 우세하였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현종대는 안동 김문 출신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지만 선왕의 유지를 바탕으로 두 외척가문의 균형이 이루어져 왔음을 논증한 연구도 있다.(임혜련, 2013, 『憲宗初 純元王后 垂簾聽政期の 官人 任用 양상과 權力 關係』 『역사와 담론』 66.)
 - 5) 오수장, 1997,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한국사』 32. : 한상권, 1998, 「조선후기 세도가문의 축재와 농민항쟁」 『한국사시민강좌』 22.
 - 6) 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1862년 농민항쟁의 구조와 성격」 『1862년 농민항쟁』 동녘. : 한국역사연구회, 1993, 『1894년 농민전쟁 연구』 역사비평사. : 김용섭, 1996, 「철종조의 민란발생과 그 지향」 『동방학지』 94. : 배항섭, 2008, 「조선후기 민중운동 연구의 몇 가지 문제-임술민란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9.
 - 7) 한국역사연구회, 1990, 『조선정치사』 上·下, 청년사.
 - 8) 洪順敏, 1992, 「19세기 왕위의 승계과정과 정통성」, 『국사관논총』 40. : 김우철, 2010,

遷禮訟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철종의 정통성과 예송을 통한 정치세력 간의 대립이 설명되었다.⁹⁾ 이토록 철종대 연구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에는 철종대 정국을 시기구분 하고, 철종대 정국 운영의 주안점과 안동 김문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실재를 논증한 연구가 있다.¹⁰⁾ 철종 년간은 조선 왕조의 말기로 많은 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도정치의 폐해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기존의 설명이 무색하게 그 실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미진하게 이루어져 왔다.

필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철종대 전 시기를 시기구분 하였으며, 세도를 부닥 받지 못한 안동 김문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집중하여간 실재를 실증적으로 밝히려 있다. 여기에서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는 철종 1기로 설정하였고, 그 특징은 안동 김문이 이후 정치적 독주를 하는 준비기간으로 안동 김문과 친 안동 김문 계열 인물들을 등용하기 위한 모색기로 설명하였다.¹¹⁾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던 철종 즉위년부터 2년까지 관인 임용의 실제와 양상 및 특징을 통해 안동 김문이 철종대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철종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의 정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 둘째, 19세기 최고의 관서로서 역할을 하였던 備邊司에 주목하였다. 우선 비변사 당상의 구성원과 시기별 참여자의 변화를 당시 정국의 추이와 함께 이해하여 수렴청정기에 활동하였던 관료군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철종 초기 관

「憲宗 10년 懷平君 李元慶 謀反 사건과 그 의미」 『역사와담론』 55.

9) 李迎春, 1997, 「哲宗 初의 辛亥禫遷禮訟」, 『조선시대사학보』 1.

10) 임혜련, 2012, 「철종대 정국과 권력 집중 양상-임술민란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49.

11) 임혜련, 2012, 앞의 글, 137쪽.

인 임용양상을 통한 권력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수렴청정기에 임용된 관인을 주요 관직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관직은 의정부의 정승, 관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와 병조의 구성원 및 군권의 향배와 관련된 군문 대장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재정을 담당하였던 관직 또한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렴청정기에 형성된 권력관계는 외척 가문이 중심이 되고, 이들과 연흔관계를 맺은 인물들이 주도하였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비변사 내부에서도 실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임당상과 議薦 참여 관원들의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철종 초기는 안동 김문, 그리고 연흔관계를 맺은 관원이 주도세력이 되어 권력을 재생산하면서, 이후 철종대 전시기에 걸쳐 안동 김문이 정국을 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I. 철종 즉위시 정국과 수렴청정의 배경

1849년 6월 憲宗이 재위 15년 만에 승하하였다. 헌종은 孝顯王后 金氏와 孝定王后 洪氏 사이에 후사를 두지 못하였으며, 왕위를 계승할 세자도 없는 상태였다. 헌종이 승하하기 전 大寶는 대왕대비 純元王后에게 전해졌고,¹²⁾ 순원왕후는 곧 후사를 결정하였다. 순원왕후가 결정한 인물은 思悼世子の 증손자 元範, 곧 철종이었다. 철종은 전계대원군이 되는 李曠의 아들이며, 사도세자가 良娣 林氏와 사이에서 낳은 恩彥君 禎의 손자가 된다. 순원왕후가 철종을 후사로 결정한 이유는 英祖의 유일한 혈맥이라는 것이었다. 순원왕후는 철종을 자신과 순조의 아들로 삼아 순조의 뒤를 이

12) 『憲宗實錄』卷16, 憲宗 15年 6月 6日 壬申.

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철종은 순조 원년 신유사옥으로 賜死당한 은언군의 손자라는 것,¹³⁾ 큰형 懷平君이 헌종 10년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사사 당하였듯이¹⁴⁾ 가족 중 죄안에 있는 인물의 후손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헌종의 대통을 이어 즉위하였으나 항렬로는 헌종의 叔父라는 문제점도 있었다.¹⁵⁾ 철종은 회평군의 옥사로 강화도 교동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자로서 군호도 받지 못하였으며, 19세의 나이였음에도 冠禮도 치르지 않았다. 철종은 국왕으로 결정된 후 德完君의 군호를 받고 관례를 치른 후 즉위할 수 있었다.¹⁶⁾ 이렇듯 철종의 즉위는 당시 왕위계승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앞서 헌종은 8세에 즉위하였던 만큼 즉위 후 6년까지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헌종대 수렴청정기에는 安東 金門과 豊壤 趙門이 균형을 이루며 정국을 주도하였다. 여기에는 순조에게 헌종의 보도를 부탁받은 조인영과 풍양 조문에 대한 순원왕후의 정치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왕의 嫡妻로 수렴청정을 하는 순원왕후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순원왕후가 撤簾을 한 후 헌종 후반기 정국은 親政을 하며 왕권을 강화하려던 헌종과 순조에게 보도를 부탁받은 趙寅永을 위시한 헌종의 외가 풍양 조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헌종의 왕권 강화는 군사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13) 『純祖實錄』 卷1, 純祖 元年 5月 29日 甲辰.

14) 김우철, 2010, 「憲宗 10년 懷平君 李元慶 謀反 사건과 그 의미」 『역사와담론』 55, 276~279쪽.

15) 『철종실록』 ‘총서’에는 철종은 헌종의 대통을 이었으며, 考는 순조, 母妃는 순원왕후라고 되어 있다. 곧 철종은 순원왕후와 순조의 아들로 입적된 것인 만큼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와 형제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철종 2년 조친예송의 원인이 되었다.

16) 『日省錄』 憲宗 15年 6月 9日 乙亥.

17) 임혜련, 2013, 「憲宗初 純元王后 垂簾聽政期の 官人 임용 양상과 權力關係」 『역사와담론』 66, 212쪽.

나타났다. 현종은 궁궐내 숙위를 강화하기 위해 총융청을 總衛營으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⁸⁾ 총위영은 현종이 壯勇營을 본받아 전적으로 宿衛도 맡고, 鎭營까지 겸하여 통괄하는 국왕친위병이었다.¹⁹⁾ 이렇듯 현종은 총위영을 통한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현종 친정 초기에는 조인영이 영의정으로 국정을 책임졌으며, 풍양 조문 계열의 權敦仁이 현종 11년부터 14년 7월까지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현종 친정기에 안동 김문에서는 金弘根이 현종 7년 4월부터 1년 6개월간 좌의정을 역임하였을 뿐이다.²⁰⁾ 현종이 친정을 한 후 조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당시의 인식은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 두 가문과 이들과 연계된 정치세력이 협력에서 경쟁으로 그 관계가 변화하였음을 반영한다.²¹⁾ 이러한 관계 속에 현종 13년에는 趙秉鉉이 權奸으로 지목받아 거제도도 유배되었으며,²²⁾ 현종 14년에는 김홍근이 탄핵을 받아 삭직되는 등²³⁾ 두 가문 인물간의 대립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종 말기 정국 속에 안동 김문의 외척 가문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안동 김문은 순원왕후가 정조 24년 당시 세자였던 순조의 세자빈으로 재간택까지 오르게 되고,²⁴⁾ 정조가 순조의 보도를 부탁하였으며, 정조의 국장이 끝난 후 순조와 국혼이 치러지면서 외척 세도가문으로서의 자리매김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안동 김문은 순조대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또한 현종이 즉위한 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현종의 국혼이 안동 김문 金祖根의 딸, 곧 효현왕후와 이루어지면서²⁵⁾ 외

18) 『憲宗實錄』 卷13, 憲宗 12年 8月 5日 丁巳.

19) 최효식, 1995,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신서원, 188쪽.

20) 『憲宗實錄』 참고.

21) 오수창, 1990, 「정국의 추이」, 『조선정치사』 上, 청년사, 112쪽.

22) 『憲宗實錄』 卷14, 憲宗 13年 10月 17日 癸亥.

23) 『憲宗實錄』 卷15, 憲宗 14年 7月 23日 甲午.

24) 『正祖實錄』 卷54, 正祖 24年 閏4月 9日 辛酉.

25) 『憲宗實錄』 卷3, 憲宗 2年 2月 26日 甲戌.

척 가문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종 9년 효현왕후가 승하하였고,²⁶⁾ 이듬해 김조근도 사망하자 안동 김문의 외척으로서 지위는 흔들렸다.²⁷⁾ 더욱이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함에 따라 세도를 부탄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왕으로 즉위하는가에 따라 권력관계의 변화가 예상되었던 것이다. 이는 헌종 친정기에 외척 가문들 간의 협력 관계가 깨어진 결과였다.

철종을 헌종의 후사로 결정한 순원왕후는 철종이 19세였음에도 수렴청정을 하였다. 순원왕후는 이미 헌종대에도 7년간 수렴청정을 한 바 있다. 표면적인 행보일 수는 있으나 헌종대 순원왕후는 헌종이 8세에 즉위하여 수렴청정이 불가피 했음에도 신하들의 청을 연이어 거절했었다.²⁸⁾ 그러나 철종의 즉위를 결정 한 후 순원왕후는 신하들의 수렴청정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²⁹⁾ 이토록 순원왕후가 적극적으로 수렴청정에 임하게 된 데에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철종의 즉위상 문제와 왕으로써 수업이 되어있지 않다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또한 안동 김문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순조·헌종대 보다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원왕후는 철종이 19세라는 수렴청정을 하기에 많은 나이임에도 이를 바로 승낙하였으며,³⁰⁾ 철종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였기 때문에 국왕의 母后라는 지위로 수렴청정의 명분을 확보하였다.

外戚은 국왕과의 혈연관계가 관료사회에서 우세를 점하는 결정적인

26) 『憲宗實錄』 卷10, 憲宗 9年 8月 25日 乙丑.

27) 『憲宗實錄』 卷11, 憲宗 10年 1月 3日 庚午.

28) 임혜련, 2008, 「19세기 垂簾聽政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0쪽.

29) 『憲宗實錄』 卷16, 憲宗 15年 6月 6日 壬申.

30) 조선전기 수렴청정이 시행될 때 국왕의 나이는 성종이 13세, 명종이 12세였고, 20세가 되는 해에 철림이 이루어졌다. 선조는 16세에 즉위하였으나 8개월만에 수렴청정을 종료하고 친정하였다. 19세기에 들어 순조가 11세, 헌종이 8세에 즉위하였고, 15세가 되는 해에 철림이 이루어졌다.(임혜련, 2008, 앞의 글, 263쪽.) 그러므로 국왕의 즉위시 연령으로 보면 철종은 19세였으므로 수렴청정이 필요한 나이는 아니었다. 이는 바로 앞서 순조와 헌종의 선례를 따른다면 더욱 수렴청정을 하기에는 많은 나이였다.

배경이 된다. 그러나 국왕과의 관계는 국왕의 승하와 세대를 거듭할수록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순원왕후는 친정 안동 김문이 외척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현종의 왕비도 자신의 가문에서 간택하였고, 자신의 세 딸 가운데 두 명을 안동 김문의 인물과 혼인하도록 하였다.³¹⁾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이토록 재생산 한 것은 조선왕조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 수렴청정은 선왕의 적처로서 주어지는 위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왕의 유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순원왕후는 철종 초 수렴청정을 하면서도 풍양 조문을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순원왕후는 비변사를 통해 안동 김문과 이들의 인척들이 주축이 되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배경을 이끌어 내었다.

II. 수렴청정기 官人 임용 양상

1. 비변사 당상의 구성과 변화상

19세기 정국 운영은 備邊司를 중심으로 한다. 비변사에 유력 성관의 인물들이 참여하면서 권력이 가문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이것이 세도정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변사는 원래 변방에서 발생하는 국방 관계의 일을 중앙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였으나, 조선 후기에 상설기구가 되어 관료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³²⁾ 이는 비변사의 구성원이 전현직 議政인 都提調와

31) 순원왕후와 순조는 1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1남이 사망한 孝明世子(翼宗)이다. 장녀는 明溫公主이며, 부마는 東寧尉 金賢根으로 안동 김문 金漢淳의 아들이다. 2녀는 福溫公主이며, 부마는 昌寧尉 金炳疇이며, 역시 안동 김문 金淵根의 아들이다. 3녀는 德溫公主이며, 부마는 南寧尉 尹宜善이다.(『敦寧譜牒』卷八, 「純祖成孝大王」.)

2품 이상 대신이 提調를 겸직하였기 때문이다. 비변사 제조가 될 수 있었던 관직은 공조판서를 제외한 6조판서, 훈련대장과 어영대장, 개성유수와 강화유수, 그리고 대제학이었다.³³⁾ 그러나 비변사 제조에 참여하는 관원은 법제적인 범주보다 훨씬 넓었다. 의정부 좌·우참찬이나 한성부 관윤도 비변사 제조가 되었으며, 공조판서는 물론 이조참판과 승지까지도 비변사 구성원으로 함좌회의에 참여하였다.³⁴⁾ 여기에 현직에서 물러나 있는 관원들도 상호군·대호군과 같은 軍職을 받거나, 중추부와 돈녕부의 관원으로 제조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을 비변사 당상이라 하며, 주로 2품 이상의 전현직 관원들이 겸직하였던 관서가 바로 비변사였다. 또한 비변사는 유사당상과 8도 구관당상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전임당상이라고 하였다. 19세기에는 중앙의 정치권력이 특정한 소수 가문에 집중되며, 정치세력들은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였다.³⁵⁾ 이토록 비변사가 국정 최고의 관서로서 인사와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군사와 지방행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던 구조는 순조·헌종대에도 변함이 없었으며, 철종대도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지속되었다.

비변사 당상으로 ‘座目’에 등재된 인물은 고위관료이며, 정국 운영에 참여하였던 주요 정치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비변사 당상의 변화를 통해 수렴청정기 권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은 철종초 수렴청정기의 비변사 당상을 정리한 것이다.

32) 오중록, 1990(a), 「비변사의 조직과 직임」, 『조선정치사』 下, 청년사, 491쪽.

33) 『續大典』 卷1, 「吏典」, ‘增置正一品衙門：備邊司’.

34) 철종대에 김보근은 이조참판으로 비변사 당상이 될 수 있었으며, 김병기는 승지에서 당상이 되었다.(『備邊司謄錄』 236冊, 哲宗 卽位年 7月 19日. : 『備邊司謄錄』 238冊, 哲宗 2年 1月 20日.)

35) 19세기 정치가 특정 가문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이들간의 통혼 관계를 연구한 다음의 성과들에 힘입어 파악할 수 있다.(車長燮, 1997, 『朝鮮後期閥閥研究』 일조각. : 權奇奭, 2000, 「19세기 勢道政治 勢力的 形成 背景(上)」, 『진단학보』 90. : 權奇奭, 2001, 「19세기 勢道政治 勢力的 形成 背景(下)」, 『진단학보』 91.)

【표 1】 철종초 수렴청정기 비변사 당상 현황³⁶⁾

성명	본관	즉위년		원년		2년			전임 당상 37)	의견 참여 여부	참고 사항	
		7월	12월	2월	7월	12월	3월	7월				12월
趙寅永	豊壤	●	●	●	●	●				議政 ³⁸⁾		사망
鄭元容	東萊	●	●	●	●	●	●	●		"		⑤
權敦仁	安東	●	●	●	●	●				"		
金道喜	慶州	●	●	●	●	●	●	●		"		⑤
朴晦壽	潘南	●	●	●	●	●	●	●		"		⑤
金興根	安東			●	●	●	●	●		"		③
朴永元	高靈				●	●	●	●		"		③
洪在龍	南陽	●	●	●	●	●	●	●		○	○	⑤
姜時永	晉州	●	●	●	●	●	●	●				⑤
權大肯	安東						●	●				④
金景善	淸風		●		●	●	●	●				③
金蘭淳	安東	●	●	●	●	●						사망
金炳冀	安東						●	●	●			④
金輔根	安東		●	●	●					○		②
金洙根	安東				●	●	●	●				③
金鼎集	慶州	●	●	●	●	●	●	●		○		
金左根	安東	●	●	●	●	●	●	●		○	○	⑤
金學性	淸風	●	●	●	●	●	●			○	○	
白殷鎭	水原						●	●			○	무반④
徐箕淳	大丘	●				●		●	●			
徐念淳	大丘				●	●	●	●				③
徐相五	大丘	●	●									무반
徐英淳	大丘						●					④
徐左輔	大丘	●	●	●	●	●	●	●				⑤
徐憲淳	大丘		●	●	●	●	●	●				②
徐憲淳	大丘	●	●	●	●	●	●	●		○		⑤
成遂默	昌寧	●	●	●	●					○	○	

36) 『備邊司謄錄』 참고. 시기 구분의 기준은 대략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그 변화상을 추적하려고 하였다. 이 중 철종 즉위년 7월은 현종말년의 관료군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哲宗初 純元王后 垂簾聽政期の 官人 임용 양상과 權力關係

申觀浩	平山	●										무반①
柳相弼	晉州		●	●	●	●	●				○	무반②
尹定鉉	南原	●	●	●	●	●	●		○	○		
李嘉愚	延安	●	●	●			●	●	●			
李景純	全州		●	●	●	●	●	●		○		무반②
李景在	韓山	●	●	●	●	●	●	●	○			⑤
李啓朝	慶州	●	●	●	●	●	●	●	○	○		⑤
李圭祜	慶州							●				④
李魯秉	德水				●							③
李敦榮	全州	●	●	●	●	●	●	●	○	○		⑤
李穆淵	全州				●		●	●	●			③
李是遠	全州				●	●	●	●				③
李若愚	延安	●	●	●	●	●	●	●	○			⑤
李應植	全義	●										무반①
李鼎臣	全州	●	●	●	●							사망
李鶴秀	延安							●				④
李憲球	全州	●	●	●	●	●	●	●	○			⑤
李輝正	牛峰	●	●	●								
鄭德和	草溪							●				④
趙冀永	豐壤	●	●	●	●	●	●	●				⑤
趙斗淳	楊州		●	●	●	●	●	●	○			②
趙秉駿	豐壤	●	●	●	●	●	●	●	○			⑤
趙鶴年	豐壤	●	●	●	●	●	●	●	○			⑤
趙亨復	한양	●	●	●								
洪耆燮	南陽		●	●								②
洪在喆	南陽	●	●	●	●	●	●	●		○		⑤
洪鍾英	南陽		●	●	●	●	●	●	○	○		②
洪鍾應	南陽	●										①
洪學淵	南陽	●	●									
黃浩民	昌原				●	●	●	●				③
인원		34	38	36	39	37	38	37	36			

- ① 철종 즉위후 제거 ② 철종 즉위년 등장 ③ 철종 원년 등장
 ④ 철종 2년 등장 ⑤ 수렴청정기 전 시기 활동

위의 【표 1】을 통해서 수렴청정기 비변사 당상 책임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 당상의 수는 철종 즉위직후 34명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 증가하여 39명의 당상이 비변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비변사가 중요 관서로서 외적으로도 팽창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³⁹⁾ 【표 1】에서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성관의 인물들이 비변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각 성관별 당상 책임자의 수를 살펴보면 안동 김문 6명, 풍양 조문 4명, 大邱 徐門 7명, 南陽 洪門 6명이다. 여기에 延安 李門이 3명이다. 전주 이씨는 같은 본관이라 하더라도 派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문으로 파악하기 곤란하여 제외하였다. 연안 이문을 제외하고 이들 가문은 왕실의 외척 가문이거나, 그 후예라는 공통점이 있다.

안동 김문은 【표 2】 안동김문 가계에서 알 수 있듯, 순원왕후뿐만 아니라 헌종비 효현왕후를 배출한 외척가문이다. 철종의 왕비 철인왕후도 金汶根의 딸로 결정되면서⁴⁰⁾ 순조~철종까지 3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한 19세기 최고의 외척 가문이 안동 김문이다. 풍양 조문은 헌종의 모후이자 익종비 神貞王后의 가문이며, 남양 홍문은 헌종 계비 孝定王后의 가문이다. 대구 서문은 영조비 貞聖王后의 가문이긴 하나, 이들은 외척으로 보다 정조대 義理, 연이어 정승과 문형을 배출한 家勢로 당상 배출자가 많았다고 파악된다. 연안 이문이나, 그 외에 韓山 李門 같은 경우는 이들 외척 가문들과 통혼관계를 맺으며 활동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당색으로는 노론이 다수이긴 하지만, 대구 서문은 소론계 인물도 있었던 만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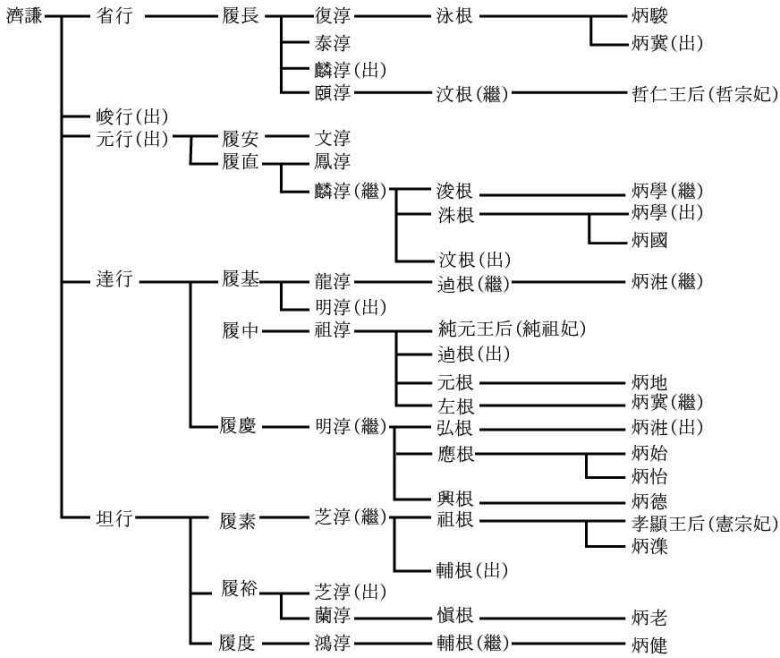
37) 예검당상 제외. 예검당상은 법제적으로 비변사 당상에 임명될 수 있는 관직 이외의 관직자가 당상에 임명될 때 예검당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8) 전·현직 의정은 전임당상직을 역임하지 않음.

39) 비변사 당상의 수는 철종 친정기에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철종 9년에는 44명이었다가 철종 14년에는 49명까지 증가하였다.(임혜련, 2012, 「철종대 정국과 권력 집중 양상-임술민란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49, 139~140쪽.)

40) 『哲宗實錄』卷3, 哲宗 2年 閏8月 24日 丁未.

【표 2】 안동 김문 가계



시기는 당색보다는 유력 가문 및 통혼관계가 관료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보인다.

이 시기 정권이 몇몇 유력 성관으로 대표되는 가문의 연합정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선편의 연구결과를⁴¹⁾ 【표 1】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로 왕실의 외척 가문이 비변사 당상의 다수를 차지했던 현상은 현종초 수렴정정기와 유사하다.⁴²⁾ 그러나 현종 초기에는 순조의 외가 潘南 朴門이 주요 가문으로 위상을 가졌으나, 외척으로서 기반을 세

41) 권기석, 2000, 앞의 글, 125쪽.

42) 임혜련, 2013, 앞의 글, 218쪽.

생산하지 못한 철종초에는 반남 박문에서는 朴晦壽를 제외하고는 당상이 배출되지 못하였다. 대신 새로이 외척이 된 南陽 洪門이 비변사에 다수 진출한 것은 이 시기 관료군 구성에 외척의 비중이 큰 특성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표 1】을 통해 파악된 당상들은 비변사 참여 시기 및 기간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변사 당상 구성원의 변화는 당시 정국의 상황과 연계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수렴청정을 하였던 순원왕후의 정국 운영도 반영된 것이다. 철종 초기는 앞서 현종 후반기 정국의 재편의 의미를 갖는다. 현종이 親政한 현종 7년 이후 정국은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의 대립이 깊어갔으며, 풍양 조문이 현종의 외가이며, 보도를 부탁받았다는 권위를 통해 우위에 있었던 시기였다.⁴³⁾ 현종 후반기에 두 외척가문의 대립과 일진일퇴의 양상은 철종의 즉위 후 풍양 조문 세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비변사 당상 구성원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표 1】에서 철종 즉위년 7월의 당상은 현종 말기의 비변사 구성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시기 안동 김문 출신의 당상이 金蘭淳과 金左根 두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현종 말기 안동 김문이 상당히 수세에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철종 즉위년 7월에 당상이었다가 이후 비변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인물(【표 1】참고사항 ①)이 있었던 반면 새로이 등장한 인물(【표 1】참고사항 ②)이 이보다 다수였다는 것은 비변사가 확대되면서 당시 정치세력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철종 즉위 후 비변사 당상직에서 제외된 인물은 申觀浩·李應植, 洪鍾應이다. 철종 즉위시 훈련대장이던 이응식과 어영대장이었던 신관호는 철종 즉위 직후 진행된 趙秉鉉의 탄핵과 연관되어 있다. 현종 후반기 안동 김문과 대립의 선봉에 섰던 조병현에 대한 처분은 안동 김문과 연흔관계로 얽혀있는 李景在가 대사헌으로 성토를 주도하였다. 이경재는 조병현의

43) 오수창, 1990, 앞의 글, 111쪽.

당어로 신관호를 지목하여 비판했으며, 이응식의 처벌도 이때 함께 이루어졌다.⁴⁴⁾ 철종 즉위 직후 이러한 풍양 조문 계열에 대한 공세로 조병현은 賜死되었으며, 신관호와 이응식은 위리안치되면서 비변사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⁴⁵⁾

반면 이 시기 새롭게 비변사 당상이 된 인물은 김보근·조두순·서헌순·홍기섭·홍종영과 유상필·이경순이었다. 이중 유상필과 이경순은 무장으로 각각 어영대장과 금위대장이 되어 비변사 당상에 예겸되었다.⁴⁶⁾ 이는 군권이 풍양 조문 계열에서 안동 김문 계열로 넘어온 것을 의미한다.⁴⁷⁾ 한편 안동 김문의 김보근이 새롭게 당상이 되었다.⁴⁸⁾ 金輔根은 사망한 효현왕후의 작은 아버지로 金祖根의 동생이 되며, 金鴻純에게 입후되었고, 이경재와 사돈관계이기도 하다.⁴⁹⁾ 철종~고종 연간 행정관료로 활약하였던 趙斗淳은 양주 조씨로써 고종대 영의정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를 반 안동 김문 계열 인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⁵⁰⁾ 그러나 조두순의 祖母는 안동 김문 김수증의 증손 김문행의 딸이었고, 어머니는 영조의 부마 금성위 박명원의 조카가 되는 반남 박문 박종악의 딸이었다. 조두순은 대구 서문 서유린의 아들 서준보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동생 趙奎淳의

44) 이경재는 김홍근의 아들 김병덕의 장인이며, 역시 김보근의 아들 김병건의 장인으로 이들과 사돈이고, 김조근과 처남 매부 사이이다. 이경재는 대사헌으로 조병현 탄핵을 이끌어내었다. 『哲宗實錄』 卷1, 哲宗 卽位年 7月 15日 庚戌.)

45) 『日省錄』 哲宗 卽位年 7月 29日 甲子.

46) 『備邊司謄錄』 236冊, 哲宗 卽位年 7月 15日.

47) 이경순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증조부 李章吾가 영조의 국구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외손자이며, 이경순까지 4대에 걸쳐 중앙 군영의 핵심 군권을 장악했던 무반벌열 가문 출신이다. 이경순의 조부 李得濟는 훈련대장과 형조판서를 역임하면서 정조의 권위를 받았던 윤행임·정민시 등과 깊은 교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순조 초기 위기를 맞이하였다.(張弼基, 2005, 『朝鮮後期 武班閥族家門 研究』, 집문당, 147~148쪽.) 이러한 이경순의 선대의 행적은 그를 안동 김문 계열로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48) 『備邊司謄錄』 236冊, 哲宗 卽位年 7月 19日.

49) 김조근·김보근 형제의 연혼관계(『安東金氏世譜』, 1982, 회상사.)

의 증손 徐憲淳은 박희수·박영원과 사돈관계였다.⁵³⁾ 이처럼 철종 즉위년에 새롭게 비변사 당상이 된 인물들은 왕실의 외척이거나, 안동 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다수였다. 이는 철종대에 안동 김문의 정치 권력을 강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인척들 간 협력을 통해 비변사에서 권력을 재생산할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종 원년이 되자 현종 말년 풍양 조문 계열 인물들과 대립에서 치죄되었던 안동 김문 인물과 안동 김문 계열 인물들의 비변사 당상 참여가 본격화 되었다. 이 시기 새롭게 비변사 당상에 임명된 인물은 9명으로 (【표 1】 참고사항 ③), 이중 안동 김문 金興根이 복직하여 한성판윤에 임용되었고, 비변사 당상을 역임하게 되었다.⁵⁴⁾ 김흥근은 현종 14년 徐相敎의 탄핵으로 삭직된 바 있는데, 김흥근이 조정을 주무르고 임금의 권한을 억눌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⁵⁵⁾ 김흥근의 복귀는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으로 현종 말년과는 다른 정치상황에서 철종 초 풍양 조문 계열의 약화에 따른 예견된 과정이었다. 이는 철종대 정국의 주도권이 안동 김문으로 넘어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철종 원년 임용된 비변사 당상의 주요 인물로는 안동 김문의 김수근이 있으며, 김경선·이목연의 참여도 그 의미가 크다. 金洙根은 철종의 국구가 되는 김문근의 친형이며, 철종 중반기 이후 안동 김문 세도를 확대한 金炳國·金炳學의 아버지이다. 청풍 김문 金景善은 외가쪽으로 안동 김문과 인척관계가 된다. 김경선의 외조모 청송 심씨가 沈健之·沈豊之와 형제지간이 되는데, 심건지는 김조순의 장인이며, 김흥근은 심풍지의 손주사위이기도 하다.⁵⁶⁾ 김경선의 당상 참여는 이러한 안동

53) 『大邱徐氏世譜』, 2003, 뿌리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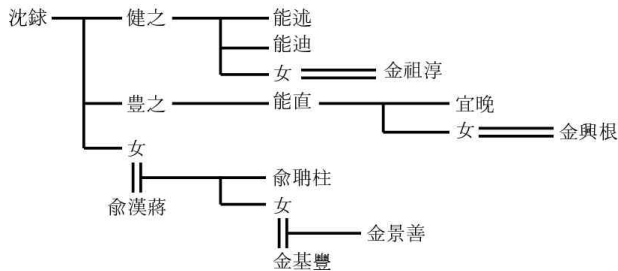
54) 『哲宗實錄』 卷1, 哲宗 卽位年 12月 26日 己丑. : 『備邊司謄錄』 237冊, 哲宗 元年 1月 10日.

55) 『憲宗實錄』 卷15, 憲宗 14年 7月 2日 戊子.

56) 김경선의 외가 가계(『敦寧譜牒』 「王妃篇」 第四冊, ‘純祖肅皇帝’.)

김문과의 혈연관계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한편 철종 원년 당상에 임용된 李穆淵은 헌종말년 조병현과 대립했던 인물이다. 헌종 13년 전 정언 윤행복이 조병현을 권간으로 지목하여 탄핵하여 조병현이 그 죄로 유배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때 이목연도 함께 조병현을 공격하였는데, 그 문구가 불경하다 하여 임자도로 도리어 유배에 처해졌으며,⁵⁷⁾ 이듬해 김홍근이 권간으로 공격받아 삭직되었을 때 이목연은 압송되어 제조사 받기도 하였다.⁵⁸⁾ 이목연은 철종 즉위 후 김홍근이 방송될 때 그 죄명이 탕척되었으며, 순원왕후는 이목연에 대해 “이 중신의 일은 단지 사람을 논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선왕도 아무 의도가 없음을 통촉하셨기에 찬배하였다가 즉시 용서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며 그를 형조판서에 임명하였다.⁵⁹⁾ 이목연의 비변사 당상 임용은 헌종 말년 정국의 상황이 전환된 것이며, 풍양 조문 공격에 앞장섰던 인물을 등용하여 친 안동 김문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표 1】에서 철종 2년에 비변사 당상에 임용된 인물 중 주목 할 관원은 김병기와 이학수이다. 金炳冀는 金泳根의 아들이나 김좌근의 양자가 된 인물이다. 김병기는 여타 비변사 당상들이 2품 이상 당상관이라 할지라도 주로 판서로서 제조를 예겸하던데 비해 도승지로서 당상에 임명되



57) 『憲宗實錄』卷14, 憲宗 13年 10月 21日 戊午.

58) 『憲宗實錄』卷15, 憲宗 14年 10月 27日 丁卯.

59) 『稗林』, 『哲宗紀事』卷1, 哲宗 元年 8月.

었다.⁶⁰⁾ 철종 2년 2월 김홍근이 좌의정에 오르게 되고, 김좌근이 훈련대장을 겸직하면서 수렴청정기 후반기로 갈수록 안동 김문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을 때, 그 가세를 안동 김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 김병기의 비변사 당상 참여의 의미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종대 李止淵·李紀淵 형제와 대립하다 파직되었던 李鶴秀도 철종 원년 관직에 다시 임용되었고, 철종 2년 비변사 당상에 임명되었다. 이학수는 김노경의 조카사위이기도 하나 종제 이용수의 딸이 김문근의 배우자이기도 하다.⁶¹⁾ 풍양 조문 계열 핵심 인물이었던 이지연은 이학수의 탄핵으로 유배 중 사망하였던 만큼, 그러한 이학수의 재등용은 풍양 조문 계열의 쇠퇴와 함께 정국이 안동 김문과 안동 김문 계열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⁶²⁾

이상에서 철종 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비변사 당상의 변화상을 검토하였다. 현종 후반기 정국에서 우세를 점하였던 풍양 조문은 조병현의 사사와 조인영의 사망으로 세도 가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또한 풍양 조문 계열의 권돈인이 정치적으로 실세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풍양 조문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풍양 조문 인물들이 정국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다. 정치적인 제거는 조병현과 권돈인으로 한정되었고, 여전히 정국에서 풍양 조문의 참여는 이루어졌다. 수렴청정은 선왕의 적처로서 주어지는 위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왕의 유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원왕후가 풍양

60) 『備邊司謄錄』 238冊, 哲宗 2年 1月 20日. 김병기는 당상에 임명된 후에도 賓對에 참석하지 않자 비변사에서 참석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철종 초기 비변사는 안동 김문 계열을 중심으로 관료군이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備邊司謄錄』 238冊, 哲宗 2年 3月 4日.)

61) 『延安李氏 判小府監公派 大譜』, 2002, 가승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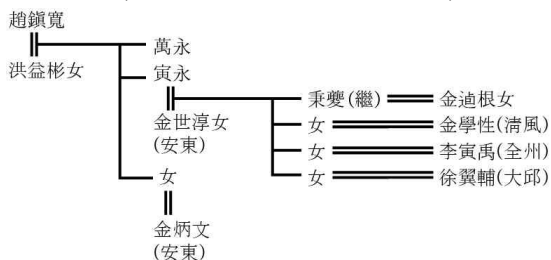
62) 수렴청정기 전 시기에 비변사 당상을 담당하였던 인물들(【표 1】 참고사항 ⑤)은 비변사 당상의 핵심으로 III장에서 언급되는 비변사 전임당상과 외척 참여자들이 대개 이들이다.

조문을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이유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원 왕후의 입장은 철종 원년 12월 조인영이 사망하였을 때 그녀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순원왕후는 “우리 순종대왕께서 헌종을 보도하는 임무를 이 대신에게 맡겼다.”라고 하여⁶³⁾ 조인영, 나아가 풍양 조문에 대한 배려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순원왕후가 풍양 조문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조인영 역시 안동 김문과 혼인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이다. 조인영은 아들 병기가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의 딸과 혼인하였기 때문에 김조순·김유근과 사돈이 된다. 여기에 상용계 이기는 하지만 조인영의 부인은 김세순의 딸이며, 여동생은 김병문과 혼인하였다. 조인영 역시 안동 김문과 연혼관계를 이루고 있었다.⁶⁴⁾ 그러므로 순원왕후는 조병현과 권돈인을 제거하기는 하였지만 풍양 조문의 완전 배제보다는 안동 김문의 입지를 서서히 강화시키는 바탕을 수렴청정기에 형성하였다.

대신 안동 김문 출신의 비변사 당상 참여자는 철종 즉위 초 2명에서 철종 2년 한때 6명까지 증가하였다. 순원왕후는 김홍근이 무고를 당하여 헌종 후반기에 삭직된 것이며, 철종 원년 유배된 김대근을 병든 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유로 방송하였다.⁶⁵⁾ 김홍근의 정계 재진출로 안동 김문은 재상직 뿐만 아니라 비변사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으며, 안동 김문 계열 인사들을 비변사 당상에 임명하여 권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63) 『稗林』 「哲宗紀事」卷1, 哲宗 元年 12月.

64) 조인영 가계(『豊壤趙氏世譜』, 2006, 가승미디어.)



65) 『稗林』 「哲宗紀事」卷1, 哲宗 元年 6月.

였다. 여기에 새로이 당상에 임명되는 인물 중 상당수는 안동 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인척이거나, 관원들 사이의 연혼관계를 통해 관련을 맺은 인물들이었다. 여기에 그간 풍양 조문과 대립하다 정계에서 물러나 있던 인물들이 등용되어서 안동 김문 계열 인물들의 비변사 참여도 증가하였다. 비변사가 국정을 논의하는 최고의 기관이면서도 여기에 참여한 당사들이 고위직을 겸직하고 있고, 비변사 자체에 인사를 담당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는 자파 세력의 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철종 초기의 권력관계는 세도정치가 특정 세도가와 그의 가문이 주도하는 것에서, 세도가가 부재한 가운데 외척 가문 특히 안동 김문과 안동 김문 계열 그리고 그들과 연혼관계를 맺은 인물들에 의해 정국이 주도되어 가는 양상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반영한다.

2. 주요 관직의 임용 양상

철종 초기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던 고위 관료들은 외척 가문 출신이거나 이들 가문과 연혼관계를 통해 친족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철종 초기의 관료군 중에서 실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은 안동 김문, 현종을 매개로 안동 김문과 사돈 관계가 되는 또 다른 외척 남양 홍문, 그리고 안동 김문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핵심 관원의 구성과 그들로 권력 집중은 수렴청정이 끝난 후 철종대 안동 김문이 권력을 독주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수렴청정기 관인 임용 양상을 최고위 관원인 의정부 삼정승과 인사권을 담당하는 이조판서·병조판서, 군권과 재정을 담당하였던 군문대장과 호조판서에 등용된 인물을 검토하며 이해하도록 하겠다.

19세기 국정 운영의 핵심부서는 비변사이긴 하지만, 議政府는 이와

함께 법제상 최고의 관서였다. 의정부의 정승의 면면은 통치자가 국정을 운영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철종초 의정부 정승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수렴청정기 의정부 삼정승⁶⁶⁾

구분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즉위시		金道喜	
즉위년	鄭元容(8. 5)	金道喜	
원년	趙寅永(10. 6)	金道喜(1월까지) 鄭元容(10. 6)	權敦仁(10. 6)
2년	權敦仁(2. 2~7월까지)	金興根(2. 2)	朴永元(2. 2)

철종이 즉위할 당시 의정부는 좌의정 金道喜 독상체제였다. 김도희는 경주 김문 출신으로 영조비 貞純王后的 가문이기는 하나, 순조 초기 몰락 하였던 김귀주를 중심으로 한 정순왕후의 직계 인물들과 가문의 행보가 달랐다.⁶⁷⁾ 영조대 영의정을 역임하였던 김홍경의 현손이 되는 김도희는 김노옹의 아들로 백부 노익의 양자가 되었다.⁶⁸⁾ 익종 대리청정기의 주도 세력이었던 김노경은 또한 김홍경의 증손으로 김도희는 김정희와도 근친 관계이다. 김도희 친효명세자계 인물로 활동하였으나 김노경이 윤상도 옥사로 피화되고, 김정희도 유배와 해배를 반복하다 철종 2년 조천예송에서 권둔인과 함께 탄핵받아 북청으로 유배에 처해졌음에도,⁶⁹⁾ 김도희는 철종 원년까지 좌의정을 역임하였고, 철종 7년 다시 좌의정에 임명되었다.⁷⁰⁾ 김도희는 안동 김문이나 안동 김문 계열과 연흔관계를 맺고 있지

66) 『哲宗實錄』, 『日省錄』 참고. 괄호는 임명 날짜.

67) 임혜련, 2008, 앞의 글, 122쪽.

68) 『慶州金氏 鶴洲公派 世譜』, 2000, 회상사.

69) 『日省錄』 哲宗 2年 7月 22日 丙午.

70) 『哲宗實錄』 卷8, 哲宗 7年 5月 16日 壬申.

않다. 오히려 동생 덕희가 풍양 조문 趙冀永의 사위로 풍양 조문과 연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김도희의 정승직 임명은 이 시기 권력 관계가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의 대립관계라기 보다 안동 김문이 권력을 강화해 가는 것으로 형성되었으며, 풍양 조문의 세력 약화는 환국과 같은 일당 전제의 급변기로 흐르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순원왕후는 철종 즉위년 8월 鄭元容을 다시 등용하여 영의정에 임명하였다. 헌종 14년 서상교의 탄핵으로 김홍근이 삭직되자 柳宜貞은 이를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때 정원용 그 상소에 대해 두둔하다가 파직되었다.⁷¹⁾ 정원용은 안동 김문의 두뇌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순조대 벽파에 의해 탄압을 받다 죽은 李在學의 외조카이기도 하다.⁷²⁾ 소론계 인물이지만 헌종대 유사당상을 역임하면서 권력의 핵심에 위치하였던 인물이 정원용이었다. 이후 철종 친정기에 안동 김문이 아니면서 영의정을 역임한 인물은 정원용이 유일한 만큼 안동 김문 계열의 핵심인물이었다.⁷³⁾

그러나 철종 원년 10월에 조인영이 영의정, 권돈인이 우의정에 임명되면서 풍양 조문 계열의 의정부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는 이시기 헌종대 두 가문의 대립으로 물러났던 안동 김문 계열 인물들을 비변사 당상 등 관직에 임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헌종은 승하였지만 순조의 유족을 받은 조인영을 등용하여 선왕의 유지를 지킨다는 정치적 명분

71) 『承政院日記』憲宗 14年 10月 25日 乙丑.

72) 이재학은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가 흑산도로 귀양갔을 때, 정순왕후의 편지를 중간에서 막은 혐의로 귀양갔다가 物故되었다.(『純祖實錄』卷3, 純祖 元年 8月 16日 庚申.)

73) 철종이 친정을 시작한 철종 3년 이후 영의정 역임자는 김홍근, 김좌근, 정원용이었다. 김홍근은 철종 3년 1월부터 5월까지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김좌근과 정원용이 번갈아가며 철종 14년까지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실제 철종 친정기 권력의 핵심은 순원왕후의 동생 김좌근이었으며, 정원용은 이에 버금가는 정국 운영의 실세였다.(임혜련, 2012, 앞의 글, 137쪽의 【표 2】 참고.)

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종이 순조의 왕통을 계승하여 즉위하였던 만큼 순조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정치 명분상 중요했기 때문이다. 철종 원년 12월 조인영이 사망하자 영의정은 권돈인이 이어갔으나 결국 권돈인은 진종 조천예송에서 죄를 입고 물러났다.⁷⁴⁾ 반면 철종 2년 김홍근이 좌의정에 임명되어 안동 김문이 정승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순원왕후가 철립 한 후 김좌근까지 정승에 오르면서 안동 김문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던 것이다.

관료의 인사를 담당하는 吏曹와 兵曹는 매우 중요한 요직이었다. 비변사에서 담당하는 인사가 유수부의 유수, 관찰사, 무반직에 한정되어 있었던 만큼 이조와 병조의 구성은 인사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표 4】는 수렴청정기 이조·병조 판서 임명 현황⁷⁵⁾이다.

【표 4】 철종초 수렴청정기 이조·병조 판서 임명 현황⁷⁵⁾

구분	이조판서	병조판서
즉위시	李若愚	尹定鉉
즉위년	李憲球(8. 3)	尹定鉉(11. 28)
원년	李魯秉(7. 5)	李嘉愚(1. 9) 趙斗淳(3. 27)
2년	趙斗淳(1. 6) 金興根(1.15) 李憲球(2. 2) 李嘉愚(4.20) 趙斗淳(7. 5)	洪在喆(1. 6) 朴永元(1.21) 徐箕淳(2. 2) 李嘉愚(2. 6) 徐箕淳(4.20) 洪在喆(7. 5) 趙秉駿(12.17:중비)

74) 『哲宗實錄』 卷3, 哲宗 2年 7月 13日 丁酉. : 신해 조천예송에서 권돈인에 대한 공격과 유배의 과정은 이영춘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李迎春, 1997, 「哲宗 初의 辛亥祧遷禮訟」, 『조선시대사학보』1.)

75) 『哲宗實錄』, 『日省錄』 참고. 괄호는 임명 날짜.

문관 인사를 담당하였던 이조판서 역임자를 살펴보면 안동 김문, 안동 김문 계열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철종 즉위년 8월에 이조판서에 임명된 李憲球는 노론 4대신 중 한명인 이건명의 현손으로 안동 김문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인물이다. 이헌구는 김복순의 사위이며, 김영근과 처남 매부 사이가 된다. 김좌근에게 입후된 김병기가 본래 김영근의 아들이었으므로 이헌구는 김병기의 고모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헌구의 아들 병익은 김조순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헌구는 김조순과 사돈관계가 되는 것이다.⁷⁶⁾ 이헌구의 뒤를 이어 이조판서에 임명된 李魯秉은 철종 2년 권돈인이 청탁을 받아 도목정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탄핵하여 이에 반발한 권돈인이 도성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며,⁷⁷⁾ 한달 후 권돈인은 조천 예송으로 퇴출되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이노병은 풍양 조문 계열의 권돈인에 비판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철종 2년에는 이조판서의 교체가 잦았다. 1월에는 김홍근이 임명되었다가 다음 달 이헌구로 교체되었으며, 이가우에서 조두순으로 이조판서가 교체되었다. 그러나 교체된 면면을 보면 이조판서 역임자의 상당수는 안동 김문과 인척관계이거나 안동 김문 계열 인물이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철종 즉위년의 병조판서는 윤행임의 아들 尹定鉉이었다. 윤행임은 정조의 眷遇를 받은 인물로 순조 원년 사사당하였다. 윤정현은 비록 늦게 관직에 출사하였지만 그 승진이 매우 빨랐는데,⁷⁸⁾ 이는 안동 김문 세도의

76) 이헌구와 안동 김문 연혼 관계(『安東金氏世譜』, 1982, 회상사.)



77) 『哲宗實錄』 권3, 哲宗 2年 5月 27日 癸丑.

78) 윤정현은 51세였던 현종 9년 문과에 급제하였다.(『國朝文科榜目』 참고.) 그러나 6년만인 현종 15년 국왕의 中批로 병조판서에 임명될 정도로 승진이 빨랐다.(『憲宗

출발이 정조의 권우를 받은 김조순에서 시작한 만큼 공통적인 배경 하에 윤정현에 대한 승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철종 원년에는 이가우와 조두순이 병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철종 2년에는 남양 홍문 홍재철, 서기순 등이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서기순은 헌종 14년 김홍근이 탄핵받아 삭직 될 때 대사헌으로 논의를 회피하여 파직당한바 있다.⁷⁹⁾ 한편 조인영의 조카 趙秉駿이 中批로 병조판서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병조 판서 역임자 역시 안동 김문 계열 혹은 외척 가문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풍양 조문에 대한 배제가 없었던 당시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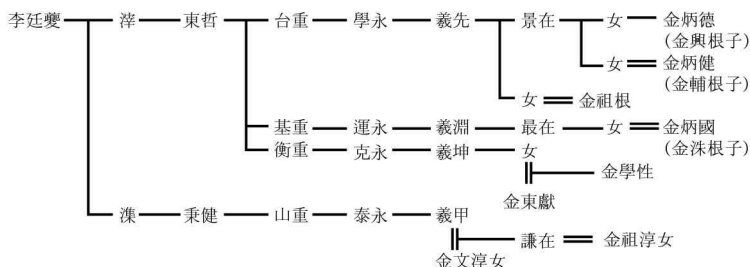
권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정과 물리적인 힘이 되는 군권의 장악 여부였다. 철종 초기 재정을 담당하였던 호조판서는 김학성과 서희순이었다.⁸⁰⁾ 金學性은 조인영의 사위이며, 이희곤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李義坤은 한산 이씨로, 가문 내의 李義先의 아들이 안동 김문과 중혼을 맺은 이경재이다. 또한 가문내 李義甲은 김조순의 사돈이기도 하다.⁸¹⁾ 김학성은 헌종 14년 중비로 호조판서에 임명된 후 철종대에도 호조판서를 담당하였다.⁸²⁾ 헌종 친정기에는 조인영의 사위라는 점이 중요한 임명의

實錄』卷16, 憲宗 15年 2月 2日 辛丑.)

79) 『憲宗實錄』卷15, 憲宗 14年 7月 23日 甲午.

80) 『哲宗實錄』권1, 哲宗 卽位年 12月 22日 乙酉. : 『哲宗實錄』卷2, 哲宗 元年 2月 2日 乙丑.

81) 한산 이문과 안동 김문의 연혼관계(『安東金氏世譜』, 1982, 회상사.)



82) 『憲宗實錄』卷15, 憲宗 14年 9月 6日 丙子.

요인이었으나, 한산 이문의 외손자라는 관계가 철종대에도 호조판서에 중용되었던 이유인 것 같다. 철종 2년 2월부터 수렴청정 기간 내에 호조판서를 계속 역임한 서희순은 청송 심씨 심능직의 사위로 역시 사위가 되는 김홍근과 동서지간이 된다. 또한 심견지의 사위인 김조순과 처가쪽으로 인척이 된다.⁸³⁾ 한편 수렴청정기 선혜청 당상은 김좌근이 담당하였다. 김좌근은 비변사의 계청에 따라 선혜청 당상에 임명되었다.⁸⁴⁾ 이처럼 수렴청정기 재정은 안동 김문과 연흥관계를 맺은 인물들, 그리고 김좌근이 담당하여 권력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재정 업무의 담당이 정치세력을 운용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안동 김문, 그리고 연흥관계를 맺은 인척들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재정과 함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문대장은 정치권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관직이었다. 군문대장은 주로 국구나 외척이 임명되어 왕권 강화의 물리적 기반을 조성해주었다. 세도정치기에는 세도가들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히 훈련도감을 장악하였다. 훈련도감이 도성을 관할하는 군문이었기 때문에 여러 군문 대장 중에서 핵심은 훈련대장이었고, 순조대에는 김조순이, 익종 대리청정기에는 조만영이 훈련대장을 역임하여 권력을 강화하였다.⁸⁵⁾ 【표 5】는 철종 초기 군문대장 역임자이다.

철종초 군문대장은 철종 즉위년 조병현 사사 사건에 이용식과 신관호가 연루되어 제거되면서 인척 구성원이 비교적 초기에 교체되었다. 또한 현종대 설치하였던 총위영이 총융청으로 다시 환원되는 변화를 겪었다.⁸⁶⁾ 군문 대장 중 핵심에 해당하는 훈련대장은 현종의 국구 홍재룡이 담당하다가 유상필을 거쳐 김좌근이 담당하였다. 어영대장은 유상필과

83) 『大邱徐氏世譜』, 2003, 뿌리문화사.

84) 『備邊司謄錄』 236冊, 哲宗 卽位年 12月 17日. “司啓曰 宣惠堂上有闕之代, 行左參贊金左根差下, 使之察任何如, 答曰 允.”

85) 임혜련, 2013, 앞의 글, 225쪽~226쪽.

86) 『哲宗實錄』 卷1, 哲宗 卽位年 6月 28日 甲午.

【표 5】 철종초 수렴청정기 軍門大將⁸⁷⁾

구분	訓練大將	御營大將	摠戎使	禁衛大將	扈衛大將
즉위시	李應植	申觀浩	徐相五 (총위대장)	徐相五	趙寅永
즉위년	洪在龍(7.15)	柳相弼(7.15)	徐相五(6.28)	李景純(7.15)	
원년	柳相弼(10.10)	金左根(10.10)	金左根(4.9) 洪在龍(10.10)		鄭元容(2.21)
2년	金左根(4.4)			白殷鎭(4.4)	金興根 (7.3:中批)

김좌근이 담당하였으며, 전통적으로 국가가 담당하였던 총용사는 서상오를 거쳐 김좌근과 홍재룡이 담당하였다. 유상필은 안동 김문 계열 인물로 현종대부터 총용사를 비롯한 군문대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금위대장은 무반 출신의 이경순과 백은진이 담당하였고, 국왕을 호위하는 친위부대인 호위청의 대장은 조인영에서 정원용을 거쳐 철종 2년에는 김흥근이 中批로 임명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철종 초 군문대장은 안동 김문과 안동 김문 계열 무장들, 그리고 현종의 처가이나 안동 김문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남양 홍문에서 담당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요 관직의 임용양상을 통해 수렴청정기 인사, 재정, 군권은 안동 김문과 남양 홍문, 그리고 그 인척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동 김문을 중심으로 한 관인들로 권력이 집중된 것은 의미하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이후 철종대 안동 김문이 독주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런 만큼 이 시기 관인 임용 양상은 안동 김문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87) 『備邊司謄錄』, 『哲宗實錄』 참고. 괄호는 임명 날짜.

Ⅲ. 외척 가문 중심의 권력 관계 형성

철종 즉위 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에 등용되고 활동하였던 관료들의 상당수는 외척이거나 외척들과 인척관계, 혹은 정치적 연계를 통해 관계를 맺은 인물들이었다. 19세기를 세도정치기라고 하나 철종대 세도정치의 성격은 선왕에게 세도를 부탁받은 세도가와 그의 가문이 권력의 중심에 섰던 것에서, 세도가는 부재한 가운데 외척이 세도 가문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곧 이 시기 권력관계는 외척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철종 초기 주요 관원들은 비변사 당상들이었다. 곧 이 시기 정치권력은 비변사를 통해서 행사되고 재창출 되었다. 외척 가문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양상은 비변사 내부의 직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변사는 2품 이상 고위 관료들이 겸직하는 관사이지만 비변사 당상 중 전임당상은 비변사에 재직하는 관직으로 각각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였다. 팔도 구관당상은 특정한 도의 직무를 주관하였으며, 유사당상은 비변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주관하였다. 이 외에도 공시당상, 제언사당상, 주교사 당상이 비변사의 전임당상이다.⁸⁸⁾ 특히 철종대는 이러한 전임당상들이 비변사를 주도하는 정도가 앞서 순조·헌종대 보다 심화되었다.⁸⁹⁾ 【표 6】은 철종 초기 비변사의 전임당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6】을 통해 보면 철종 초기 전임당상 역임자들의 상당수는 외척 가문 출신이거나 이들과 연혼관계로 맺어진 인물들이었다. 외척 가문 출신으로 안동 김문의 김보근·김좌근이 있으며, 남양 홍문의 홍재철·홍중영이 있으며, 풍양 조문 출신으로 조병준이 있다.

88) 오종록, 1990(a), 앞의 글, 502쪽.

89) 오종록, 1990(b), 「비변사의 정치적 기능」 『조선정치사』 하, 청년사, 559쪽.

【표 6】 비변사 전임당상 담당 관원⁹⁰⁾

구분 전임 당상 이름	철종 즉위년(1849년)					철종 원년(1850년)					철종 2년(1851년)				
	有司	貢市	舟橋司	堤堰司	8道 句管	有司	貢市	舟橋司	堤堰司	8道 句管	有司	貢市	舟橋司	堤堰司	8道 句管
金輔根										關東					
金鼎集					湖南					湖南					湖南
金左根					北關	●				北關	●	●			北關
金學性	●				關東										
徐憲淳		●			關西		●			關西		●			關西
成遂默	●				嶺南	●				嶺南					
尹定鉉											●				
李景在					京畿										
李啓朝						●					●				
李敦榮						●					●				
李若愚					海西					海西					
李憲球										嶺南					嶺南
趙斗淳															關東
趙秉駿					湖西					湖西					湖西
趙鶴年		●					●					●			
洪在龍	●		●			●		●			●		●		
洪鍾英	●			●	京畿	●			●	京畿	●			●	京畿

【표 6】에서 안동 김문 출신의 전임당상은 김보근과 김좌근뿐이다. 의외로 안동 김문의 참여가 적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현종 초기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에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이 균형을 이루어 정치권력을 장악한 가운데서 비변사만은 안동 김문이 주도하였던 상황과 큰 차이를 지닌다.⁹¹⁾ 그만큼 현종 후반기에 안동 김문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

90) 『備邊司瞻錄』 참고.

91) 현종대 수렴청정기에는 김유근이 전임당상직을 최대 4개까지 겸직하였고, 김난순, 김학순, 김홍근 및 김홍근이 전임당상으로 비변사를 주도하였다.(임혜련, 2013, 앞

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철종 초기는 그러한 안동 김문이 향후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헌종대 전임당상이었던 김홍근이 정승으로 전임당상직에 임명되지 않았던 점, 김좌근이 북관구관당상에서 유사당상, 그리고 공시당상까지 해를 거듭할 수록 겸직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변사 내에서 안동 김문의 입지는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임 당상직을 겸직하면서 비변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주요 인물은 또 다른 외척 남양 홍문의 홍재룡과 홍종영이 있다. 홍재룡은 국구로서 유사당상과 주교사 당상을 겸직하였으며, 경기구관당상 이외에도 유사당상과 제언사 담당을 겸직하면서 김좌근과 더불어 수렴청정기에 전임당상으로 활동이 컸던 인물이다. 홍종영 역시 유사당상과 제언사 당상 그리고 경기구관당상을 역임하였다. 이렇듯 안동 김문과 남양 홍문에서 전임당상직을 겸직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은 결국 비변사 내에서도 실제 주도세력은 외척 가문이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조병준도 수렴청정 기간 내내 호서구관당상에 임명되었다. 이는 풍양 조문도 외척으로서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배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전임당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외척 가문과 연흔관계를 맺거나, 당상들 간 혼인관계망 속에 있는 인물들이 다수였다. 안동 김문과 연흔관계를 맺은 인척으로 서희순, 이경재, 이헌구가 있다. 또한 이들과 혼인관계망 속에 있는 인물로 김학성, 조두순이 있다. 여기에 윤정현과 이계조, 성수목, 이돈영은 정치적인 배려로 전임당상에 임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조학년은 풍양 조문 이긴 하나 조만영가와 상당히 인척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를 풍양 조문으로 보기는 곤란하다.⁹²⁾ 이토록 권력의 핵심기구인 비변사 내에서 실제 핵심 인물은 외척 가문의 인물과 이들과 혼인관계

의글, 229~230쪽.)
92) 권기석, 2000, 앞의 글, 128쪽.

를 맺거나 연흔관계를 통해 인척 관계망에 속한 인물들이 다수였다. 이는 외척을 중심에 두고 권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척을 중심에 두고 형성된 권력관계는 비변사의 인사활동인 議薦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천의 대상이 되는 관직은 4도유수, 평안도와 함경도 관찰사, 통제사와 절도사, 도호부사 등 국방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관직이며, 또한 재정과 연관된 관직이었다.⁹³⁾ 【표 7】은 수렴왕후 수렴청정기에 비변사 의천에 참여한 당상과 의천 횡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수렴청정기 비변사 議薦 참여자⁹⁴⁾

참여자	참여횟수 합계	즉위년	원년	2년	전임당상 여부
金左根	19회	1회	12회	6회	○
金學性	7회	4회	3회		○
成遂默	10회	4회	6회		○
尹定鉉	2회			2회	○
李啓朝	9회			9회	○
李敦榮	6회		1회	5회	○
洪在龍	1회	1회			○
洪在喆	2회			2회	
洪鍾英	23회	1회	12회	10회	○
白殷鎭	2회			2회	
柳相弼	4회	1회	2회	1회	
李景純	7회	1회	2회	4회	

【표 7】을 보면 수렴청정기에 의천에 참여하였던 관원들은 무장이었던 백은진·유상필·이경순과 홍재철만 제외하고 모두 전임당상을 역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은진을 포함한 3인은 무반 출신 군문대장으로

93) 오종록, 1990(b), 앞의 글, 553~558쪽.

94) 『備邊司臚錄』 참고.

통제사, 북병사 등과 같이 무관이 임명되는 관직의 의천에 참석하였다. 홍재철만 제외한 의천 참여자가 모두 전임당상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비변사 내에서도 핵심 관원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권력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의천 참여자 중에서 그 비중이 높았던 인물은 김좌근과 홍종영이었다. 이 시기 의천을 주도했던 인물은 유사당상과 군문대장을 역임하였던 인물이었다.⁹⁵⁾ 의천 참여 비중이 높았던 김좌근과 홍종영 모두 원년부터 유사당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성수목과 이계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사당상으로 재직하였던 철종 즉위년과 원년의 의천 참여 횟수가 10회였던 것은 총 합계에서 위의 두사람 다음으로 높은 횟수이다. 이계조와 김학성, 이돈영도 모두 유사당상으로 의천 참여 횟수가 높았던 것이다.⁹⁶⁾ 또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던 김좌근과 홍종영은 모두 외척 가문 출신이다. 이는 앞서 검토한 대로 이 시기 권력관계의 중심은 외척이 주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외척가문이 협력관계에 있으며 그 대상은 헌종대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이었던데 비해 철종대에는 안동 김문과 남양 홍문임을 알 수 있다.

철종대에도 정국의 운영은 몇몇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특정가문의 핵심은 외척이었다. 외척으로 남양 홍문이 정국 참여 비중이 높았던 반면, 세도 가문으로서 풍양 조문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순조와 헌종대에는 국왕의 유촉을 받은 세도가가 속한 가문이 중심이 되어, 이들이 속한 가문이 협력하면서 우열을 다투는 권력관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철종대에는 선왕의 유지를 받은 세도가가 없었던 상황에서 외척이라는 지위만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권력관계가

95) 오종록, 1990(b), 앞의 글, 560쪽.

96) 유사당상 참여 여부는 앞의 【표 6】 참고.

변화하였던 것이다. 순원왕후 수렴청정기는 철종대 초기로서 안동 김문은 앞서 헌종 말년 다소 수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시기에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같은 외척이었던 남양 홍문과의 동반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철종 2년 윤8월 철종비가 안동 김문 김문근의 딸로 결정되면서 이제 안동 김문은 현 국왕의 외척이라는 지위를 더할 수 있었다. 철종 초기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에 형성된 이상과 같은 권력관계 속에 철종 친정기에는 권력의 향배가 안동 김문에 집중되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맺음말

이상의 연구를 통해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던 철종 즉위년부터 2년까지 관임 임용의 실제와 양상을 통해 당시 관료군의 구성과 그 변화상, 주요 관직의 임용양상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형성된 권력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철종 초기 권력관계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글을 마치려고 한다.

철종은 후사 없이 승하한 헌종의 대통을 이어 순조와 순원왕후의 아들로 입적되어 즉위하였다. 철종이 헌종의 숙부 향렬이었다는 것은 철종의 선대가 최안에 있었다는 점과 함께 즉위상의 문제였다. 한편 순조대부터 세도 가문으로 정국을 주도하였던 안동 김문은 헌종 말기 정치적으로도 수세에 몰렸으며, 외척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앞서 순조·헌종대 보다 미비하였다. 순원왕후는 철종이 19세에 즉위하여, 수렴청정을 하기에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모후로써 수렴청

정을 하였다. 그러나 수렴청정은 선왕의嫡妻로써 위상이 주어지는 만큼 선왕의 뜻을 받았던 풍양 조문을 정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였다. 대신 순원 왕후는 비변사를 통해 안동 김문이 주축이 되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철종대에도 정국 운영의 중심 관서는 비변사였다. 철종 초기 비변사 당상에는 주로 왕실의 외척 가문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외척으로서 기반을 재생산하지 못한 반남 박문 대신 현종의 계비 효정왕후의 남양 홍문이 비변사에 다수 진출하였다. 현종 말기 정치적 위기로 인해 철종 즉위 당시 2명의 비변사 당상만 배출하였던 안동 김문은 김홍근이 정계에 복귀하는 등 참여 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안동 김문과 혼인 관계, 혹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던 안동 김문 계열 인물들이 비변사 당상에 임명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권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철종 초기 새로이 비변사 당상에 임명된 인물의 상당수는 안동 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거나 관원들 사이의 연혼관계를 통해 맺어진 인물들이었다. 반면 풍양 조문은 조병현의 사사와 조인영의 사망으로 그 입지가 약화되었지만,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한편 인사, 재정, 군권등을 담당하였던 주요 관인의 임용양상을 살펴보면 안동 김문과 남양 홍문 두 외척 가문과 그 인척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비변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임당상과 인사권을 행사하였던 의전 참여자는 외척 가문 출신이거나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인물 혹은 당상들 간 서로 혼인 관계망 속에 있는 인물들이 다수였다. 이때 외척 가문은 안동 김문과 남양 홍문이 중심이었으며, 외척으로써 위상을 놓지 않았던 안동 김문은 이후 철종 친정기에 정치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은 수렴청정기에 마련된 것이었다.

19세기를 세도정치기라고 한다. 그러나 철종대 세도정치의 성격은 선왕에게 세도를 부탁받은 세도가가 부재한 가운데 외척이 세도 가문으로

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외척은 국왕과 인척관계를 바탕으로 관료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반면 국왕과 관계가 멀어지면 외척으로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순조대 외척 연합의 주요 가문이었던 반남 박문이 철종대에 정국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러한 외척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안동 김문 또한 헌종비 효현왕후의 승하, 국구 김조근의 사망으로 외척으로의 위상이 약화되었을 때 헌종이 승하하였다. 순원왕후는 안동 김문이 외척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종의 왕비를 김문근의 딸로 정하였으며, 수렴청정에 적극적이었고, 비변사 당상에 안동 김문 계열 인물들을 다수 임명하여 권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철종 초기 정국은 안동 김문과 새로이 외척이 된 남양 홍문 두 외척 가문이 중심이 되고,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관원들이 주축이 되어 권력관계를 형성하였다. 다만 선왕의 유족을 받았던 풍양 조문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안동 김문이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권력 확장을 꾀하였다. 결국 철종대는 기존의 세도정치와는 또 달리 외척이라는 지위만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정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권력관계가 변화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續大典』 『敦寧譜牒』 『稗林』 『國朝文科榜目』
『慶州金氏 鶴洲公派 世譜』, 2000, 회상사.
『安東金氏世譜』, 1982, 회상사.
『大邱徐氏世譜』, 2003, 뿌리문화사.
『延安李氏 判小府監公派 大譜』, 2002, 가승미디어.
『楊州趙氏族譜』, 1980, 회상사.
『豊壤趙氏世譜』, 2006, 가승미디어.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 朴齊炯, 1974, 『近世朝鮮政鑑』, 탐구당.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임혜련, 2008, 「19세기 垂簾聽政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張弼基, 2005, 『朝鮮後期 武班閥族家門 研究』, 집문당.
車長燮, 1997, 『朝鮮後期閥閥研究』, 일조각.
한국역사연구회, 1990, 『조선정치사』 上·下, 청년사.
權奇奭, 2000, 「19세기 勢道政治 勢力的 形成 背景(上)」, 『진단학보』 90.
權奇奭, 2001, 「19세기 勢道政治 勢力的 形成 背景(下)」, 『진단학보』 91.
金明淑, 1999, 「雲石 趙寅永의 政治運營論」, 『조선시대사학보』 11.
김우철, 2010, 「憲宗 10년 懷平君 李元慶 謀反 사건과 그 의미」 『역사와담론』 55.

사학연구 제110호(2013. 6)

유봉학, 1997, 「楓臯 金祖淳 연구」, 『한국문화』 19.

李迎春, 1997, 「哲宗 初의 辛亥祧遷禮訟」, 『조선시대사학보』 1.

임혜련, 2012, 「철종대 정국과 권력 집중 양상-임술민란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49.

임혜련, 2013, 「憲宗初 純元王后 垂簾聽政期の 官人 임용 양상과 權力 關係」,
『역사와 담론』 66.

洪順敏, 1992, 「19세기 왕위의 승계과정과 정통성」, 『국사관논총』 40.

Abstract

Appointment of Bureaucratic Officials and Power Relations in the Early Cheoljong Period under a Regency by Queen Sunwon

Hye-ryun Lim

This paper discusses the three-year period following King Cheoljong's coming to the throne, when the nation was under a regency by Queen Sunwon. The aim is to examine the practice of appointing bureaucratic officials and to understand power relations of those times.

The political power of the early part of King Cheoljong period was led by the maternal relatives of the king, who were the Kims of Andong and the Honges of Namyang. Also, it was the Office of Border Defense that was in the center of the authority. In specific, the core government officials were Yusa-dangsang (a permanent member of the Office of Border Defense) from the Office of Border Defense and Dangsang who could participate in recommending government officials, where a number of the Kims of Andong and their relatives entered to obtain political power. In addition, many government officials were connected by marriage. Similar with this, there was considerable number of the Honges of Namyang and their relatives, too. It was through the Office of Border Defense that the Kims of Andong could advance to significant political position. To sum up, the Office of Border Defense was provided as an institutional strategy.

However, the political relationship of King Cheoljong and that of Heonjong was quite different: The political balance between the Kims of

Andong and the Jos of Pungyang was achieved according to the King Sunjo's will. The King Heonjong died; however, he was not able to have a son to carry on his throne. Therefore, the King Cheoljong came to the new throne by the Queen Sunwon instead. Thus, it was the maternal relatives' political position that enabled them to seize power during the King Cheoljong's ruling. Also, the Kims of Andong were able to begin gaining political ground during the period of regency by the Queen Sunwon. Also, Cheoljong's queen consort was selected from the Kims of Andong as well, which allowed the Kims of Andong to retain their political status as the maternal relatives of a king.

Keyword : regency, Queen Sunwon, the kims based in Andong, Bibyeonsa(備邊司), relatives of the King.